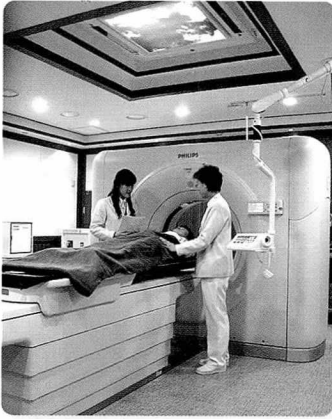


춘천성심병원

첨단장비 도입해 방사선종양학과 개소



한림대학교의료원 춘천성심병원(원장 최문기)은 3월 28일(수) 본관 지하 1층에 첨단장비를 갖추고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하였다.

춘천성심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에 의사 2명을 비롯

한 의학물리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8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첨단 장비인 방사선치료 전용 16 slice MDCT 시뮬레이터, 진단용 X-선과 CT촬영이 가능한 OBI를 장착한 선형가속기, 4차원 치료설계

가 가능한 치료계획용컴퓨터(Radiation Therapy Planning System)를 도입했다.

춘천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CT 촬영 후 환자의 영상을 치료계획용컴퓨터에 전송하여 치료부위와 방사선이 조사되는 방향, 방사선량 등을 계획·결정하고, 진단용 X-선 촬영시 사용하는 방사선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선형가속기를 이용해 환자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 치료한다.

최문기 병원장은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가장 진보적인 방사선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와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춘천인근 지역에 방사선종양학과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암환자를 위해 최신 장비의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암 치료율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동정

정읍방사선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전북 정읍방사선연구원이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3월 29일(목) 현판식을 갖고 새 출발했다.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한 정읍방사선연구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된 것과 때를 맞춰 개칭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창규 원장을 비롯, 강광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상호 긴밀한 관계구축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RT(방사선이용기술) 핵심기반시설인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13만5,000평 부지에 연건평 7,000평 규모로 총 463억원을 투입, 지난해 9월 개원했다.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현재 1단계연구소 건립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인 대전류싸이클로트론시설 설치, IAEA지정 국제RT협력연구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을 추진키 위해 180여명의 연구인력이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사업, 우주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해모힘, 화상치료겔, 우주식량 등의 고부가가치 신기술 체계발에 성공,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학회 출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가 아시아지역 감마나이프수술 전문가들의 모임인 아시아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를 설립하고 최근 일본에서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회 관계자는 “세계 약 1/3을 구성하고 있으나 세계무대의 중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감마나이프 관련인사들이 연구 및 임상활동을 증진시킬 장을 마련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국제학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회 학술대회에는 한국 감마나이프 관련 인사 26명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등에서 약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감마나이프수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발표됐으며, 차기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김동규 교수를 선임했다.

-내용출처 : 데일리메디, 2007. 3. 4

해외 동정

대기 중 석면 분진 농도 간단히 측정하는 휴대형 계측기 개발

시미즈 건설은 시바타 과학(주)과 공동으로 이번에 해체 공사장의 대기 중 석면 분진 농도를 간단·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계측기 「파이버 방사선 측정기 FS-1」을 개발·실용화했다. 이 계측기는 유사 타입의 계측기로서는 업계 최소·최경량이고 현장에서 다루기가 우수한 제품이다.

석면 분진 농도 측정 방법은 종래에는 공기를 여과한 필터로 포집한 섬유 수를 현미경을 사용하여 계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계측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일이 필요했다. 해체 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 분진 비산을 실시간 처리로 관리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휴대형 계측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계측 장치는 중량 10kg 전후로 가격이 수천만 원대라 보급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된 휴대형 계측기 「파이버 방사선 측정기 FS-1」은 공기 중에 포함된 석면 분진을 레이저광에 의한 광산란 기술을 이용하여 간단·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이다. 이 계측기는 간단한 조작으로 불과 1분에 측정을 완료하는데, 해체 공사장 등의

석면 분진 비산 감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계측기는 유사 타입의 계측기 중에서 최소·최경량으로, 현장에서 다루기가 우수한 제품이다. 간단한 측정 원리의 채용과 탑재 기능의 엄선에 의한 부품수의 대폭 삭감과 계측 소프트웨어 개량 결과, 장치의 콤팩트화·경량화와 동시에 저비용화가 실현되었다. 충분한 계측 기능을 구비하면서도 중량은 3kg, 가격은 800만원으로 종래 제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설계 명세서·가격이다.

이 계측기는 입자를 크기로 나누는 「소형 사이클론 분립 장치」와 반도체 레이저를 광원으로 한 「광산란 검출기」를 탑재하고 이 조합으로 레이저광을 신호 처리하고 섬유상 입자를 계측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측정 기능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실제 석면 제거 현장에서 200회 넘는 시험 데이터의 취득·평가를 실시하였다.

-내용출처 : <http://www.shimz.co.jp/>